

Japan Weekly Digest

2011. 8. 27. ~ 9. 2.

☐ 금주의 이슈

- 노다 신정권 출범

☐ 일본기업전략

- 관 주도의 액정연합 : 도시바, 히타치, 소니, 소형액정 사업 통합발표
- 일본의 의료기기메이커 신흥국에서 약진

☐ 경제산업성 동향

- 산업혁신기구의 업무실적 평가
- 최근 엔고가 일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

☐ 보고서 리뷰

- 『국제경제체제의 재구축과 일본의 대응』
농림중앙금고종합연구소



대한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노다 신정권 출범

-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54) 재무상이 승리, 30일 열린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의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95대 총리로 지명됨
- 일본 민주당은 29일 오전 민주당 중의원·참의원 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표 경선을 실시해 노다 재무상을 새 대표에 선출
- 노다 재무상은 1차 투표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그룹의 지원을 받은 가이에다 만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에 밀렸으나 결선 투표에서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 그룹의 지지로 역전 승리
- 5선 중의원인 노다 재무상은 와세다대학과 일본의 정치엘리트양성소인 마쓰시타(松下)정경숙 출신으로 1993년 일본신당 공천을 받아 중의원 의원이 된후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민주당에서 2002년 국회 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음
- 최대 현안인 재정 건전화문제에 대한 노다 신임총리의 입장은 소비세 증세를 포함한 재정규율 중시론자로서 세금의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세출개혁에 전력을 기울인 후에 세입개혁을 실행하겠다는 주장임
- 나아가 노다 신임총리는 ‘희망있는 일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해양과 우주, 새로운 전원생활권 구상, 글로벌인재 육성 등 세가지의 국가 100년 비전을 1년 내에 작성한다는 구상임
- 또한 노다 총리는 중의원 수와 참의원 수를 각각 80명, 40명 정도 감원하고, 행정쇄신 전임각료를 두고,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외교안전보장정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
- 이어 9월 2일 단행된 조각에서 노다 총리는 신임 외상으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전 민주당 출신 정조회장을 기용함. 겐바 외상은 한·일FTA에는 적극적이지만 한·일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경제산업상에는 하치로 요시오(鉢呂吉雄)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재무상에는 경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 아즈미준(安住淳) 전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함
- 노다 신정권은 당면한 지진재해의 복구·부흥을 비롯하여, 간나오토 정권으로부터 떠맡게 될 적지 않은 미해결 경제정책 과제와 함께 야당인 자민·공명 양당과의 협력 등 풀어나가야 과제가 산적해있음

◆ 일본기업전략

□ 관 주도의 액정연합 : 도시바, 히타치, 소니, 소형액정사업 통합발표

- 8월 31일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소니 등 3사가 민·관 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스마트폰 등 중소형 액정 패널사업의 통합기업을 설립하기로 합의. 금년 가을을 목표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봄에 사업통합을 완료할 예정
- 재팬디스플레이라는 명칭의 통합신회사가 실시하는 제3자 할당증자방식에 산업혁신기구가 참여, 출자액은 2,000억엔으로 7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 도시바, 히타치, 소니 등 3사는 각각 10%씩 출자함
- 중소형 액정시장에서 이들 3사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10년에 각각 6%~9%이며, 3사 전체로는 22%로 샤프사의 15%를 제치고 수위에 오르게 됨
- 일본의 대형 전기기기메이커들은 액정패널사업으로 먼저 출발했으나 TV 등 대형패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대만 등에 추월당함에 따라 사업통합으로 경쟁력을 높여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통합의 주요 배경임
- 사업재편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은 산업혁신기구로, 동 기구 사장은 최근 중소형 액정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일본기업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고 국내 기간산업 성장을 위해 국가자금의 투입 필요성을 강조
- 이번 사업통합은 산업혁신기구의 참여에 의한 관주도의 액정연합으로서 신회사가 인재나 기술의 융합을 실현하는 일본 최초의 산업재생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의 의료기기메이커 신흥국에서 약진

- 일본의 의료기기메이커들이 신흥국에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음.
 - 도시바 메디컬시스템이 중국, 브라질에서 현지생산을 확대하는 외에 히타치가 중동에 판매회사를 신설, 일본 광전은 중국, 브라질 등에서 판매 거점을 확충
-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흥국에서는 현지기업이나 구미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후발 주자인 일본기업들은 개발·판매·마케팅 등의 기능을 현지에서 확충, 시장동향의 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업 확대를 서두르고 있음
- 세계적으로 의료비 절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2015년에는 2009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소득 증가를 배경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신흥국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 동향

□ 산업혁신기구의 업무실적 평가

- 최근 경제산업성은 산활법(산업활력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민·관 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에 대한 업무실적평가를 실시함.
- 산업혁신기구의 업무실적 평가는 동 기구의 자본이 주로 국가 및 민간으로부터 출자와 정부가 보증을 한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①동 기구의 수입·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②동 기구의 투자결정이 국가가 정한 세가지 지원기준(사회적 수요에의 대응/성장성/혁신성)을 충족했는지의 여부 등의 기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번 평가대상 산업혁신기구의 투자안전은 2010년 4월~2011년 3월 기간 중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총 12개임
 - 평가결과에서는 동 기구의 수입·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기구의 투자결정도 상기 세가지 지원기준에 합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앞으로 산업혁신기구가 더욱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 투자사업 전체로서 장기 수익성 확보
 - 투자사업 전체로서 분산투자
 - 개별 투자안전에 대한 규율 확보(투자후 사후관리 등)
 - 개별 투자안전에 관한 민간펀드 등과의 보완성
 - 책임 있는 투자집행체제 정비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외부기관과의 제휴
 - 기술혁신 환경의 정비

□ 최근 엔高가 일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1.8.22~8.26
 - 대상기업 : 대기업(제조업) 61개사, 중소기업(제조업) 83개사
중소기업(비제조업) 10개사
 - 조사항목
 - 상정 환율 1엔 엔高진행시 영업이익 감소액
 - 기업수익에 미치는 엔高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 정부의 요망대책
 - 외국의 일본기업 유치현황

○ 조사결과중 외국으로부터의 일본기업 유치교섭 관련

- 대기업

- 외국으로부터 유치교섭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 18%
- 유치교섭을 받은 상대국가로는 총 13건 중 기타 아시아(4건: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3건)이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은 1건

- 중소기업

- 외국으로부터 유치교섭을 받은 총 20건 중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 아시아(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가 5건, 다음으로 한국이 3건임

◆ 보고서 리뷰

『국제경제체제의 재구축과 일본의 대응』

농림중앙금고종합연구소, 9월2일

□ 미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와 대일압력

- 1970년대 이후 아시아 NIES, ASEAN의 경제발전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이 형성되고 1989년에는 APEC이 결성됨. APEC은 1994년 보팔 선언으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약화됨
- 1960년대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왔던 미국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고 미·일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됨. 이 때문에 미국에서 대일 비판이 거세지고 양국간 무역교섭의 결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자율규제가 실시됨
- 80년대 후반이후에는 미국의 대일압력이 한층 강화되어 MOSS(시장중시형 개별협약:Market-oriented Sector-Selective Talks)협약, 미·일구조협약, 미·일포괄경제협약 등에 의해 미국은 일본의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대일압력이 일본의 규제완화, 규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침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문제점

- TPP는 미국의 주도로 아시아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지만 글로벌화를 전개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TPP에 의한 관세철폐를 바라고 있음. TPP교섭 참가국들은 농산물수출국 또는 농업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는 입장이 다름. TPP교섭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아시아를 분단시킬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TPP에 참가하는 경우 일본의 농업이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됨
- 세계경제는 미국의 상대적 축소, 중국과 인도의 성장, 러시아의 부흥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WTO교섭에서도 개도국들의 영향력이 강화되기 있기 때문에 도하라운드(DDA)가 암초에 부딪히고 있음

- 또한 WTO 기존원칙에 반하는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음.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제도의 국제적 조정은 필요하나 이제까지와 같은 구미주도의 제도형성은 수정되어야 함. 앞으로 일본은 미국에 편중된 외교를 수정하여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TPP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미국의 주도에 말려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일본의 농업이 심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으로, 일본에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 후자와 관련해서는 한·일 FTA에도 해당되며, 최근에는 일본농업의 개혁, 농업분야내에서의 산업내무역 확대 등으로 해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출처 : <http://www.nochuri.co.jp/report/pdf/n1109re2.pdf>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 (1) 『디플레가 엔高를 가져온다』 일본무역투자연구소, 8월27일

*출처: <http://www.iti.or.jp/flash145.htm>

- (2) 『한계에 달한 일본의 재정, 국민저축 감소로 생산도 축소』
경제산업연구소, 8월30일

*출처: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oguro/02.html>

- (3) 『동학적 일반균형모델에 모델에 의한 일본의 재정정책효과 평가』
일본은행, 9월1일

*출처: http://www.boj.or.jp/research/wps_rev/wps_2011/wp11e09.htm

- (4) 『탈국경, 탈중앙 실현으로 창조적 부흥을 - 공간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산업연구소, 9월2일

*출처: http://www.rieti.go.jp/jp/special/special_report/049.html

- (5) 『국제경제체제의 재구축과 일본의 대응』 농림중앙금고종합연구소, 9월2일

*출처: <http://www.nochuri.co.jp/report/pdf/n1109re2.pdf>

- (6) 『엔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경제산업성, 9월2일

*출처: <http://www.meti.go.jp/press/2011/09/20110901003/20110901003.html>